



▲ 개소식 테이프 커팅장면

본지 김병오 편집국장 ▶

환경관리공단, 개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소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 개성사업소가 2007년 11월 2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착공, 금년 6월 준공됐으며, 26,390㎡(7,983평) 부지에 하루 1만5천톤(총 시설규모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시운전 과정을 거친 후 7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의 '특례지역' 기준치인 30mg/l 이하일 뿐 아니라, 2013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10mg/l 보다도 낮은 3.3mg/l 으로 방류하고 있다.

입주업체가 적어 하루 유입량이 1,800㎥/일 정도로 빈부하 상태이나 시설을 최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향후, 적정량의 폐수가 유입될 경우 보다 더 양호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금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근)는 개성공단 폐

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맡게 됐다.

이번에 개소한 환경관리공단 개성사업소에는 남측 인력과 북측 인력을 합해 모두 28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열린 '환경관리공단 개성사업소 개소식'에는 환경관리공단 손주석 이사장을 비롯,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동근위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희성 원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관계자, 성남수처리산업 나기봉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념행사에 이어 정·배수장을 방문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로만손 등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의 근로여건 등을 둘러봤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본지 김병오 편집국장을 비롯 일간지 환경전문기자 등이 대거 참석해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